朝鮮日報

發行所 서울市太平路一街 朝鮮日報社

最初의 對外通商成立
韓·日交易調印式
廿三日中央廳會議室서 擧行

最初의 對外通商成立을 意味하는 韓日交易協定 調印式은 二十三日 午前十一時부터 中央廳第一會議室에서 擧行되었는데, 調印式에는 韓國側에서 … 外務部 … 商工部長官 任永信, 財務部長官 金度演 … 聯合軍最高司令部 代表 … 參席하였다

調定書全文

財政調定內容

韓·日交易調定內容

經濟紐帶鞏固
李總理 歡迎辭

廿七日丹陽號로 一次海產物輸出

弗과日圓貨 三六〇對一
美陸軍省發表

駐蘇美大使任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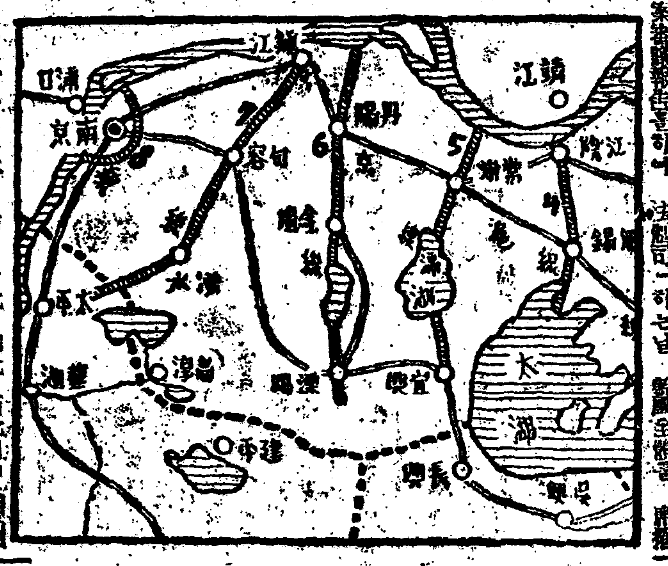
檢察官辭表撤回
朴興植保釋再考慮要請을可決

民法改正案 審議報告廻付

駐韓美軍撤退에 美紙會議說論評

伯林封鎖解除?
東獨經濟委長示唆

太原飛行場 中共비占領



廿二日,蔣·李·何三氏
中共에最後抗戰決議
何首相,國府全軍指揮掌握

【南京廿三日發AFP合同】廿二日杭州에서는 總統代理 何應欽首相이 會議를 開催한바 있는데 이 會議에서는 蔣介石氏 李宗仁氏 何應欽氏 等이 參席하여 다음과 같은 決議를 하였다 …

國府·南京撤退

蔣氏,杭州에兵力集結
國府,南京·上海鐵道遮斷發表

中共軍,南京驛에突入
市市到處서掠奪開始

海軍基地 江陰占領

國府軍艦十隻 中共艦沈於送

太原城內突入
中共軍,掃蕩戰展開

통·印通商協定

東西獨間交易 西獨側도要望

經濟界
保稅倉庫業許可

週末時勢

UN消息

人事往來

◇去來停止

八面鋒

三大統領 閣僚會談

西伯林地區選擧 美英佛側서拒絕

聖都國際化 同意說否認

日本戰犯者 十七名死刑

撤退建議金氏와協議

眼鏡界의權威
愛眼堂
서울忠武路一街

◎宣文社新刊書籍案內◎

文藝 安民翼 原作
청사랑
一六〇頁·高級紙使用 表裝豪華·값一八〇원
今日再版出來!!

聽川 金晋燮 隨筆集
生活人의哲學
四六豪華版·高級紙 三三〇頁·값三八〇원
第四版發賣中!

D·카-네기 著 李錫洲 譯
人間處世學

國民保健所長 醫博 李洛昇 著
結婚과性問題
重版出來!

受驗用自習用 延禧大學敎授 尹泰雄 著
英文解釋法研究
四六版·高級紙三五〇頁·값三五〇원
改訂◇增補◇第四版發賣中!

受驗用自習用 서울文理科大學敎授 李明善 著
國文解釋法研究
四六版·高級紙三〇〇頁·값三五〇원
再版出來發賣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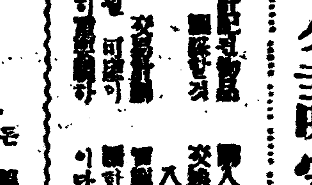
乞期待! 近刊案內
英美文學의權威 鄭寅燮 編著 譯註
現代美國詩選
四六豪華版·高級紙二〇〇頁(印刷中)

法科大學 韓國大學敎授 라스키 著 閔錫泓 譯
政治學原論
四六版·高級紙三〇〇頁(印刷中)

라스키 著 張湖萬 譯
美國大統領制解說
四六版·高級紙二〇〇頁(印刷中)

圖書出版 宣文社 發行
서울市鐘路 … 振替京城九四〇九番

三版發賣
熱狂的歡迎裡에 初再版賣盡
受驗學習敎師用(改正版)
最新國文解釋法
崔英朝 著 값200圓 送20圓
◇系統的인國文解釋法의新研究◇
1 高等國文과 受驗國語의 要領을 가장 學的으로 簡單히 組織化시키고 解說도 곧 實際에 活用할수 있게하였다
2 各段마다 (着眼點)을 가르처 應用力을 가추었다
3 古今을 通한 各文傑作을 系統的으로 總網羅했기 때문에 文學史敎授의 作品參考書로도 無二한 ……이다
서울鍾路二街九一
金龍圖書 株式會社
電光 1099·2536 振 서울1·109



米香寶盧東

吳利錫病院
外科·內科·外科·肛門科
院長 醫學博士 吳利錫
春川府要仙洞 電話三二四番

石灰 生石灰 消石灰
梧柳石灰工場
工場主 韓 … 京仁線梧柳洞驛前
서울事務所 … 電話本局(3)七〇番

지나친 術用語로 文化政策에 異變 — 各大學에서 全的反對

文敎財團農地 마로 取扱키로 決定

警備線斷絶

總辭職에 誤解말라 反民者는 繼續檢擧

金相敦氏와 問答

復興委員會規定 總理令13號로 公布

親善文化使節團 五月九日 美國向

「團結만하면 幸福히 살수있다」

李大統領 大邱서 演說

不法取得等調査 — 歸屬財産調査法案을 提出

「윤」博士等同行

肥料統制法案

國民校生

故元夫人 追悼會 明25日 培材中學서 擧行

旅館等大幅整理 — 于先衛生施設不備者부터 斷行

留宿人은 自由拘束

行動隊總司令 黃福順等15名送廳

罹災民住宅 五十棟建築

江口에 大火 八棟이 灰燼

就職大會

步兵中隊入隊式

檢察官會議에서 懷鄕問題討議

25日反民公判

檀君聖蹟重修

庭球大會

陸聯役員改選

團體動靜

서울中學運動會

第九聯隊軍旗祭

內務部女警課서 女性啓蒙隊派遣

民主學聯委員長 姜永八等送廳

동화 이발소

문용구

대연이네 집에서는 이발소를 합니다. 커다란 거울이 두 개 걸상이 도 두개 조그마한 이발소를 합니다.

그러나 조그만 대연이네 이발소도 매일같이 심심하지 않게 손님이 있었읍니다.

대연이 동무 수돌이도 명순이도 모두가 대연이네 이발소에서 머리를 깎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큰 회사의 사장이라고 아침 저녁으로 자동차로만 다니는 수돌이 아버지도 대연이 아버지 솜씨가 좋다고해서 꼬박 꼬박 대연이네 이발소를 찾아오십니다.

어제 저녁에도 대연이네 이발소에서 수돌이 아버지가 머리를 깎고 계셨읍니다. 코등에다 걸고 만다니는 금테안경보 벗고 목부터 흰 치마같은 학발가를 하고서 아주 얌전하게 앉아서 머리를 깎고 계셨읍니다.

"얘 수돌아! 너의 아버지 어저께 이발했지?"

"그래"

"그런데 너의 아버지가 밤낮 자동차만 타고 뻐기고 있지만 우리 아버지 앞에서는 꼼짝 못하고 가만히 앉았더라"

이 말을 들은 수돌이는 화가 났읍니다.

(그까짓 이발쟁이 앞에서 우리 아버지가 꼼짝 못해?)

"왜? 너의 아버지가 무서워서 그러시는줄 아니?"

"그럼 뭐야 까딱하면 면도하다가 얼굴을 쭉 베면 어떡해야"

수돌이는 깜짝 놀랐읍니다. 그 날카로운 면도로 얼굴을 쭉 베면 피가 막 나올 것을 생각하니 무서워졌읍니다.

대연이는 그러나 생각할수록 기운이 납니다. 이발소쟁이 아버지가 아주 훌륭한 사람만 같았읍니다.

새로나온 책

『어린이』 4월작 계역자발행 값80원 『어린이신문』 고려문화사발행 값20원

동요 이사간 순이

윤석중

이웃집 뒤를 따라 고개를 넘어
새벽에 순이네는 떠났읍니다.

이사간 순이네집 무너진 담에
올해도 개나리가 피었읍니다.

순이가 입고 떠난 노랑 저고리
개나리 꽃보다도 고왔읍니다.

短篇小說 구름과 꽃과 少女 (10)

崔仁旭 作 · 金熊超 畫

「中國之抗戰」의 뒤를 이어우리 「스크린」에 나타난 中國映畫의 最高異色篇!!

聖城記
編導 沈浮
主演 謝添 ☆ 白楊
製片 徐昂☆監製 羅學濂
K·P·K SHOW 男便의 苦痛 絶讚上映中
美푸린서팔社製 사랑 燈台守 25日까지
26日 서울劇場

元賣發 東光實業株式會社 新發賣! 도향 稻香燒酒 比無芳香 快輕後醒 30度

生命水 胸腹痛·胃痙攣·吐瀉·霍亂·酒醉·飽食·新舊積滯·其他消化不良症 發賣元 東亞藥品貿易株式會社

杜四相觀 易學大家 金東礎 先生

高級洋菓子 祝賀用은 特別製造 永信號

技術·迅速·信用本位 株式會社 鮮榮工務店

아방 잉크

서울音樂專門學校

最高名作 美시네컬드社 密會

27日까지 首都劇場

各種藥草 種苗種子 三山藥業社

鶴印 朱肉 永久不變色 國産最高品

板유리 賣買 朝鮮琉璃工事株式會社